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립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
- P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교 육 컨 설 팅 전 공

정 단 비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립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 - P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진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교 육 컨 설 팅 전 공

정 단 비

정단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26일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주 심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원 효 헌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조 진 호 (인)

목 차

Abstract ····· v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II. 이론적 배경 ····· 6

1. 핵심역량 ····· 6

2. 교양교육과정 구성요소 ····· 14

3.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쟁점 ····· 18

Ⅲ. 연구 방법 ····· 23

1. 연구 절차 ····· 23

2. 연구 대상 ····· 24

3. 연구 도구 ····· 27

4. 분석 방법 ····· 30

IV. 연구 결과 ····· 31

1. 국립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비교 ····· 31

2.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 48

3.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한 인식 ····· 56

4.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한 인식 ····· 61

Ⅴ. 결론 및 제언 ····· 67

1. 연구의 결론 ····· 67

2. 시사점 ····· 72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 73

<참고문헌> ····· 75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목 차

<표 Ⅱ-1> 학자별 핵심역량 정의 ····· 7
<표 Ⅱ-2> DeSeCo 프로젝트 핵심역량 ····· 9
<표 Ⅱ-3> Education 2030 변혁적 역량 ····· 10
<표 Ⅱ-4> ACE사업 내 핵심역량관련 주요내용 ····· 11
<표 Ⅱ-5>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와 대영역 ····· 15
<표 Ⅱ-6> 역량중심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비교 ····· 20
<표 Ⅱ-7>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평가 준거 ····· 22
<표 Ⅲ-1> 학생기획평가단 현황 ····· 24
<표 Ⅲ-2> 학생기획평가단 단과대학별 현황 ····· 25
<표 Ⅲ-3> 응답자 특성 ····· 25
<표 Ⅲ-4> 단과대학별 학과 현황 ····· 26
<표 Ⅲ-5> 객관식 설문문항 ····· 28
<표 Ⅲ-6> 주관식 설문문항 ····· 28
<표 Ⅲ-7> 신뢰도 분석 결과 ····· 29
<표 Ⅳ-1> 대학교육의 이념 ····· 32
<표 Ⅳ-2> 대학교육의 인재상 ····· 34
<표 Ⅳ-3> 대학교육의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 36
<표 Ⅳ-4> 교양교육의 목적 ····· 38
<표 Ⅳ-5>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 39
<표 Ⅳ-6> P 대학의 핵심역량 및 정의 ····· 45
<표 Ⅳ-7>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학점 ····· 47
<표 Ⅳ-8>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객관식 응답 ····· 48

<표 Ⅳ-9> 단과대 간의 개발영역의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차이 ····· 49
<표 Ⅳ-10> 단과대 간의 개발영역의 구성 인식 차이 ····· 49
<표 Ⅳ-11>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좋은 점 ····· 50
<표 Ⅳ-12>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문제점 ····· 52
<표 Ⅳ-13>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개선점 ····· 54
<표 Ⅳ-14>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객관식 응답 ····· 56
<표 Ⅳ-15> 단과대 간의 운영영역의 충실도 인식 차이 ····· 57
<표 Ⅳ-16>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좋은 점 ····· 58
<표 Ⅳ-17>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문제점 ····· 59
<표 Ⅳ-18>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개선점 ····· 60
<표 Ⅳ-19>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객관식 응답 ····· 61
<표 Ⅳ-20> 단과대 간의 성과 및 개선영역의 성과 인식 차이 ····· 62
<표 Ⅳ-21> 단과대 간의 성과 및 개선영역의 개선 인식 차이 ····· 62
<표 Ⅳ-22>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좋은 점 ····· 63
<표 Ⅳ-23>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문제점 ····· 64
<표 Ⅳ-24>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개선점 ····· 66

A Study on Student Perception of the Operating in Core Competency 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 Focusing on the P University -

Jeong, Dan B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educational situation of the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at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located outside the capital area. It also examined students' understandings of the Curriculum.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how to improve the Curriculum by analyzing students' understandings of the Curriculum at stage one of the medium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2019-2023) of P University.

The research selected more than 3,000 students studying at national universities outside the capital area to compare P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Liberal Art Curriculum with them. It aimed at analyzing each university's educational polic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e Competency program and its sub-elements, goals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management condi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The analyses used the 'Student Planning and Evaluation Team' report organized by P University in 2021. It contained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number of respondents to

the objective questions was 1,235, and that to the subjective questions was 1,237. For further investigations, five student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Students' opinions and understandings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by looking at its development, operation, performance, and ways to improve the Curriculum. The following is the analytical result:

First, although the Core Competency program classifies Liberal Arts subjects and sets various standards for each Liberal Arts subject, students cannot understand its aim due to the lack of guidance and promotion of the Core Competency program. Thus, they are unable to develop their abilities.

Second, further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of the Curriculum based on the Core Competency program is needed. According to the 'Student Planning and Evaluation Team' report, many students requested the opening of courses in various subj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urriculum, which reflects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ird, to achieve the goal, the institutions must systematically tackle the probl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ectures.

Through the interview,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had a low perception of P University's attempt at curriculum improvement. The students answer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al system to feel its reform and innovation directly.

This study can be used to provide suggestions for reforming P University's Liberal Arts Curriculum.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의 교양교육은 학문의 내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지성 교육, 건전한 시민으로 인성 함양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으로 체계화된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 '리버럴 아츠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에 대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Liberal Arts인 교양교육의 의미는 자유인(Free man)의 교육을 지향하는 데서 유래되었다(손승남, 2021).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강조한 리버럴아츠 교육의 본질은 최상류층 시민 또는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후 독일의 도야교육(Bildung) 등 현대의 대학으로 교양교육이 이어지면서 실용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

백승수(2019a)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리버럴아츠 교육이란 '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분야를 가로지르는 학제 횡단적 문리교육'으로 일컬으며, 여러 학문의 융합적 시너지를 발휘하는 유연한 열린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이라고 제시한다. 강창동(2012) 또한 오늘날의 리버럴아츠 교육은 고대 그리스 로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에 근거하여 실용주의의 측면을 더한 개념이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는 자유인을 인간상으로 하며, 자유인은 무지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지식교육을 토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순수교육이지만 실천적인 교육의 의미는 없어 시대가 흘러가며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더해 오늘날의 교양이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존의 리버럴아츠 교육이 표방하였던 엘리트주의와 이성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나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반교육은 미국형 자유교육으로 고전적 자유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으로 현대화하였다. 일반교육은 전공교육과 대비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백승수, 2019a).

이처럼 교양교육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며 재해석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양교육의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여 명칭하고 있는 용어가 없어 혼용되고 있다. 자유강조형 교양교육, 인문강조형 교양교육, 기초강조형 교양교육으로 세 가지의 유형이 혼재되고 있다(백승수, 2019a).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빠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사회를 적응하기 위한 역량중심 교양교육이 등장하였다(조헌국, 2017).

교육계에서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재육성을 중요한 과업으로 고민하고 있다(이경호, 2019).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학과나 전공은 계속 신설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학문은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다(조헌국, 2017). 그리고 슈밥(Klaus Schwab)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는 '스마트 문명'이며 이는 산업 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세계라고 한다(K. Schwab, 2016). 이에 교육의 측면에서는 '지식의 종말'이라고 부를 만큼 근본적인 지식의 지형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백승수, 2017).

따라서 이제는 학문에서의 세분화, 전문화가 사라지면서 학문 간의 소통, 융합을 통해 전문지식을 직접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중 특히나 교양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심에 놓여있다. 지성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역량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병문(2018)은 교육의 내용은 지식교육에서 능력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종합적 사고능력과 통찰력 등으로 지식과 함께 정서적인 능력,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역할이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버럴아츠 교육을 통해 융·복합적 창의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윤유진, 이연주(2018)은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고자 역량개발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 보편적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학문 간 융합 능력 등의 사고를 길러 교육해야 한다고 한다.

이숙정, 이수정(2012)은 역량기반 교양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논하고 있다. 첫째, 역량기반 교양교육은 인문교양 자유교육과 사회현장인 직업교육의 대립을 극복하여 통합할 수 있다. 둘째,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연결점을 찾아 학문적인 통합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전공과 교양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 다른 역량기반 교양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정부의 평가와 같은 외재적인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대학 내부에서 자체적인 개선과 변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살펴보면 교양교육의 경우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을 진단 요소로 보고 있다. 대학의 인재상, 산업 수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는지 우선하여 살펴본다(교육부, 2020). 그리고 핵심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교양 교육과정의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 보완 등을 통해 질적 관리를 시행하는지를

진단한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정부의 시각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은 '핵심역량'의 함양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고등교육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변화로 나타난다. 하지만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을 구현하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고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김인영, 2020; 백승수, 2020; 박은숙, 2021). 이에 양질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현재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한다.

P 대학의 교육영역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2030 4R(Round, 단계)로 제시되어있다. 1단계(2019 ~ 2023)는 역량 조성기로 교양 및 전공교과 혁신 보호학문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현재 1단계 역량조성기의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P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P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환류를 위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생기획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평가항목으로는 교양, 전공, 학사제도, 핵심역량 및 비교과,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 탐색을 수행하고자 '교양교육' 영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에서 교양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생들의 인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타 국립대학의 운영현황과 함께 비교하여 앞으로 P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 대학의 교육이념 및 인재상, 핵심역량,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과정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P 대학 학생들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P 대학 학생들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 P 대학 학생들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

가. 핵심역량의 의미

역량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며 용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일컫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렵고 core competency(e), essential skills, generic skills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국내에서도 학문 분야에 따라 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혹은 핵심역량 등으로 번역하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진미석 외, 2011). 본 장에서는 오늘날의 핵심역량의 개념이 되기까지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의 등장 배경은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의 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로 경영학의 인력개발/관리 영역에서 연구되어 오다가, 생애 발달과 연관된 의미로 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이서진, 2021; 윤정일 외, 2007; 김대중, 김소영, 2017; 이상은, 소경희, 2019). 학자별 역량의 개념 정리는 <표Ⅱ-1>과 같다.

<표 Ⅱ-1> 학자별 핵심역량 정의

분야	학자	핵심역량 정의
인적 자원개발	McClelland(1973)	실제 수행과정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인적 자원개발	Boyatzis(1982)	특정 과제에서 효과적이거나 뛰어난 수행의 이면에 있는 수행자의 내력 특성
인적 자원개발	Parry(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핵심적 요소에 영향을 주면서, 업무성과와 관련이 높고,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성과 기준에 비교되어 측정이 쉬우며, 교육훈련 및 개발과정을 거쳐 발달 가능 지식, 기술, 태도의 집약체
인적 자원개발	김진모 (2001)	조직의 과업 및 전략을 이루어내고, 바람직한 기업문화 수립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
생애전반	OECD(2005)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개념' 역량의 개념은 지식 및 인지적, 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 사회적, 행동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다는 것
교육	Holmes & Hooper, (2000)	핵심역량은 생애에 걸쳐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으로 학교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개념
교육	OECD(2018)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가동

출처: 곽은희(2017); 구병모, 김기호, 김종규(2010); 이서진(2021); 이상은, 소경희(2019) 재구성

현재의 역량 개념에 많은 영향을 끼친 McClelland(1973)는 역량이란 성공적인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 있는 수행자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McClelland는 개인이 타고난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살면서 습득된 여러 가지 능력, 경험, 개인 특성이 누적된 결과로 당면 과제의 해결 또는 성과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특성을 망라하여 역량이라는 큰 보따리와 같은 개념으로 제안하였다(구병모, 김기호, 김종규, 2010). McClelland의 연구를 시발점이 된 이래로 역량은 주로 직무 또는 직업 수행능력을 뜻하게 되었으며, 상황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다(이서진, 2021).

Boyatzis(1982)는 McClelland의 연구를 관리자영역으로 더욱 확장시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내면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97년이 되어 OECD의 DeSeCo프로젝트(1997~2003)를 통해 역량에 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OECD는 핵심역량을 좁은 의미의 개인의 특성이 아닌 '사회발전과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하였다(OECD, 2005). 이는 인적자원개발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역량의 개념을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DeSeCo프로젝트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사회와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중요시해야 한다.

<표 Ⅱ-2> DeSeCo 프로젝트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범주	내용
도구의 상호교감적 사용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교감하며 사용 -> 의사소통역량, 문해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교감하며 사용 -> 정보활용능력 기술을 상호교감하며 사용 -> 기술활용능력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타인과 원만한 관계맺기 -> 인간관계능력 팀으로 일하며 협력하기 -> 팀워크(경청, 관계구축능력, 협상능력) 갈등을 관리 및 해결 -> 의사소통능력
자율적 행동	전체적 조망 속에 행동 -> 판단력 생애계획 수립 및 실천 -> 미래지향적, 계획력 권리, 이익, 한계, 요구를 주장하고 지키기

이후 OECD에서는 DeSeCo프로젝트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21세기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의 틀을 개발하기 위하여 Education 2030(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을 추진하게 되었다. OECD Education 2030에서는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념 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주기 사업 때는 '21세기 역량 개념 틀'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실시한 2주기 사업은 구체적인 미래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ducation 2030의 역량은 DeSeCo 프로젝트에서 규명하였던 핵심역량을 업그레이드하여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라고 불린다. 변혁적 역량의 하위요소로는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이 있다.

<표 Ⅱ-3> Education 2030 변혁적 역량

핵심역량의 범주	내용
새로운 가치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고자 필요한 역량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하위 영역으로는 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긴장과 딜레마 조정	다양한 문화, 사회,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서로 양립하는 입장의 논리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책임감	앞의 두 역량의 전제조건으로 이 역량의 핵심은 문제해결력, 적응력을 포함한다.

출처: 이상은, 소경희(2019) 재구성

그리고 <표Ⅱ-3>과 같이 정의한 역량을 바탕으로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내용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회원국에서는 위와 같은 역량 개념 틀을 활용하여 각 나라의 교육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 핵심역량 도입 및 활용

고등교육에서 핵심역량의 등장은 전공 중심 교육의 비판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손민호(2006)는 전통적인 학문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지원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이하 ACE사업), 대학생 핵심역량진단 지원사업(K-CESA),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이 핵심역량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였다(백승수, 2020).

먼저 ACE사업을 통해 역량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개발, 역량 진단도구 개발, 역량 진단 시스템 개발 등 사업에 선정된 소수의 대학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준비하였다. ACE 사업에서 시행한 핵심역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된다.

<표 Ⅱ-4> ACE사업 내 핵심역량관련 주요내용

내용	설명
핵심역량 설정	대학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기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의 철학과 이념을 연계하여 제시
역량반영 교육과정 구성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구성 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성 제시 대학의 발전계획과 부합하여 작성
역량 효과분석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핵심역량에 대한 효과 제시

출처: ACE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

ACE사업의 평가지표를 살펴보았을 때도 학부교육 선진화계획의 비중은 30%를 차지하며,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 지원시스템 등을 종합 평가하기 때문에 핵심역량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통일된 핵심역량에 대한 효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적인 핵심역량보다 정부에서 도입한 K-CESA를 활용하기를 권장하였다(백승수, 2020) K-CESA는 2006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핵심역량 진단도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도구이다. 2010년 대학생 핵심역량 측정 도구가 개발되면서 정부가 설정하는 대학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다.

[그림 1] K-CESA 핵심역량 구성요소

그리고 대학의 평가제도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하여 2019년 ACE+, CK, CORE, PRIME, WE-UP 사업을 폐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교육부(2018; 2020)에서는 교육과정 평가항목을 교양은 핵심역량의 제고, 전공은 전공능력 제고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김인영(2020)은 학교 평가로 인해 도입된 '역량'은 단순 끼워 맞추기식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손승남 외(2021)는 고등교육의 역량은 재정지원사업과 같은 외재적인 요인으로 담론이 형성되어 한계점과 쟁점이 있기에 새로운 교육의 방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식기반의 교육에서 지식활용교육, 지식창출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실제 교육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 운영체계와 평가 및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위와 같이 고등교육에서 역량 및 역량교육에 대한 도입은 타의로 시작되었긴 하지만 김혜영 외(2021)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단계적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들은 핵심역량 설정, 교육과정 매칭, 교육효과 점검 등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대학조직 내 교육체계 변경이라는 상당한 노력의 결과물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2. 교양교육과정 구성요소

가. 교육목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유진, 이연주(2018)는 교육과정의 목표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끼치므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호(1992)는 교양교육의 가치선언을 통해 대학 나름대로의 교양교육의 목적을 세워 교양교육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야지 한국 대학 교양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수업의 목적과 목표로 더욱 구체화되며, 교과목 차원에서는 교육내용과 경험이 조직화되어 토대를 이루어낸다(정연재 외, 2021).

이와 같은 목표설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은 인성개발, 지성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성 측면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인간의 육성을 초점에 두어 학문성을 강조하는 지성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윤유진, 이연주, 2018).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2016)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둘째,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셋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넷째,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다섯째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함양, 마지막으로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5>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와 대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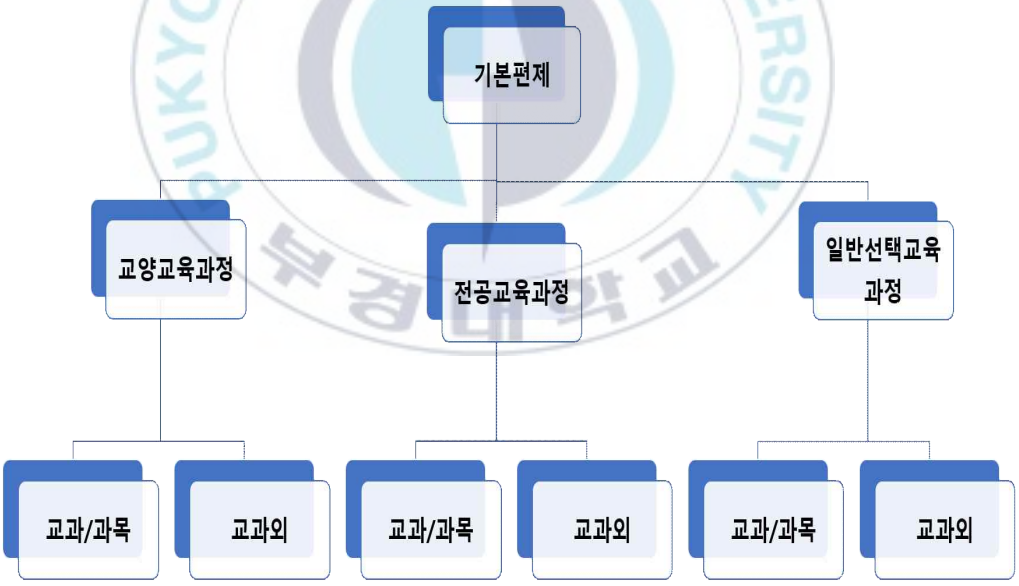
목표	대영역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제해결능력함양	기초교육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함양	기초교육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교양교육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교양교육
공동체의식, 시민정신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출처: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6)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발췌

오늘날에 있어 교양교육과정 목표설정의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백승수, 2017). 교양교육이 과학기술의 변화가 낳은 새로운 인성과 역량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한다(홍석민, 2018). 따라서 대학교육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설정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나. 교양교육과정 구조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는 틀이며, 교육과정 편성 구조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다(윤유진, 이연주, 2018). 대학의 교육과정의 최고 수준은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이며, 그 아래로는 교양, 전공, 일반선택의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다시 교과, 과목의 체계로 구성이 된다. 이에 교양교육과정은 전공학문이 세분화됨으로써 인간의 전인적인 통합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 비추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한다(김대현, 이은화, 2005).



[그림 2] 대학교육과정 편성의 구조

출처: 김대현, 이은화(2005) 대학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일부발췌

교육과정 구조에는 구성방식에 따라 자유선택제,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 중핵교육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Boyer, 1987). 자유선택제 교육과정(free electives)은 하버드대에서 시작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편성된 과목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은 없는 구조이다(윤유진, 이연주, 2018).

배분이수 교육과정(distribution requirements)은 자유선택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균형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이다(정연재 외, 2021). 학문계열별로 교육과정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에서 일부 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설정하여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윤유진, 이연주, 2018). 백승수(2020)는 중핵교육과정은 단편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각 교과들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궁극적으로는 통합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배분이수제에는 공통배분필수제, 영역별 배분필수제, 배분영역별 자유선택제 등으로 구분된다.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이란 이성호(1987)는 중핵적 경험을 하나의 집합체로 모아 놓고,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이수시키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특히 사회문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의 교육과정이다(정연재 외, 2021). 따라서 단편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통합적 학습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중점적으로 삼는 다고 볼 수 있다(백승수, 2020).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필수이수제, 부분필수이수제, 선택이수제, 그리고 필수와 선택으로 이원화하여 필수는 중점개별과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윤유진, 이연주, 2018).

3.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쟁점

가. 교양교육 내 핵심역량 도입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교육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발되는 사람들의 특성들로 진술된다(김대현, 2021). 이에 교육목적으로서 핵심역량을 도입하여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하는 교육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고등교육에서도 교육목적으로서의 핵심역량 설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핵심역량의 도입은 교양교육부터 시작하였다. ACE 사업의 시작으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교양교육의 진단 요소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운영'을 제시하면서 역량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교육부에서는 교양교육에서 제고해야 할 핵심역량의 예시로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적 능력, 문제해결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능력, 반성적 통합적 학습역량'을 제시하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역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평가 요소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단순히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조남민 외(2022)는 '역량'의 투입과 산출은 무형의 수치화 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학문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해외의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일괄적용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술성을 고려한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이하,

역량기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백승수(2020)는 교양교육이란 유용성과 실용성을 넘어 인간됨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원형이기에 외부의 요인으로 시작된 교양교육과정 개편일지라도 내재적인 본질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서정일(2021)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인문학적인 소양이 역량의 기초이며,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은 이러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교육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한다. 손승남 외(2021) 또한 역량기반 교육은 지식 전수의 교육을 반성하는 대안적 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이전의 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특징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에 치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에서 실천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취해야 할 것”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역량을 개발시킬지 고민한다(곽영순, 2012). 이근호(2012)는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은 미래사회 변화 전망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교육과정에 설정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수자의 학습 내용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Ⅱ-6>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 비교

기존 교육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수목표중심	역량중심
투입(가르쳐야 할 것)	산출(성취해야 할 것)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학습한 것의 축적과 재생산	학습한 것의 창출과 적용
단편적	총체적
단일교과중심	범교과중심

출처: 곽영순(2012)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한 해외 교양교육과정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쿠즈타운 대학(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은 2008년 교양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교양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기본핵심과정, 기초교양과정, 세부교양과정, 주제별 역량 코스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코스에 맞춰 수강하도록 규정하였다. 역량별로 교과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예를 들면 쓰기 역량의 경우 논리적인 글쓰기 과제가 존재하여 교수자가 피드백을 해주는 수업내용이 있을 때 해당 역량의 교과목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최상덕, 2015).

다.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평가와 질관리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라는 방안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 김대현(2021)은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혜림(2007)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질 관리를 위한 장치이며, 평가 준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수행 결과를 후속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라고 한다.

최근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대학 내 환류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교육품질개선 CQI (Continuouts Quality Improvement, 이하 CQI)라는 의미로 '품질'이라는 맥락 아래에 도입되었다. 신현석(2016)은 고등교육의 질의 의미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CQI는 교육의 투입요소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 준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강지혜, 손복은(2021)이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표Ⅱ-7> 평가준거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Ⅱ-7>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평가 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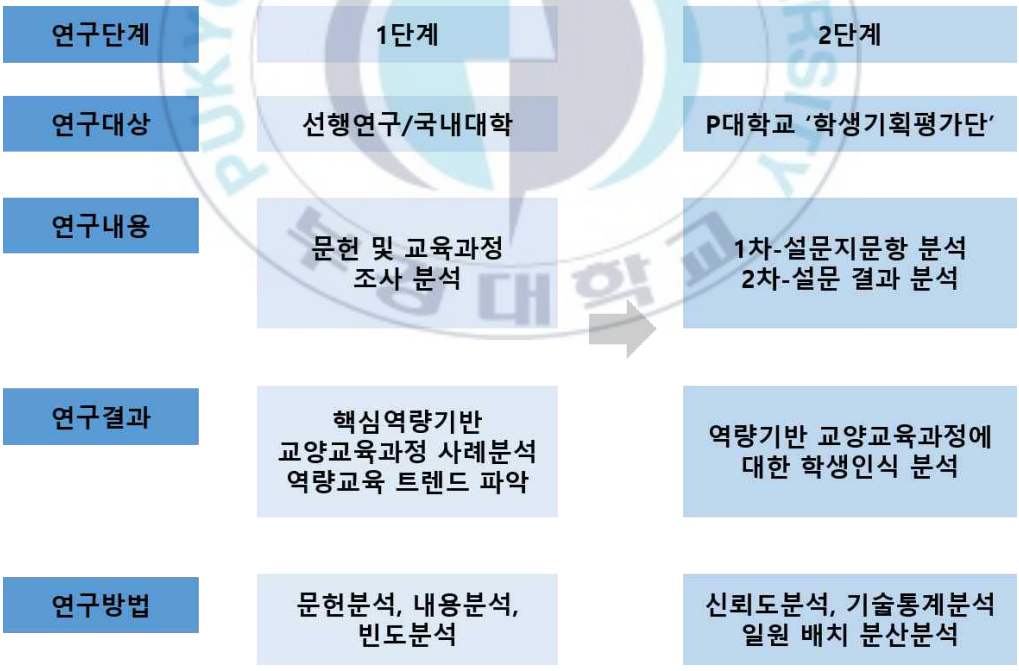
영역	평가기준	내용
교육과정 개발	교육목표의 타당성	교양 교육과정은 대내외적으로 교육여건 분석을 반영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연계성	교양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대학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	교양 교육과정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유형이 체계적으로 구성, 핵심역량기반으로 구성)
교육과정 지원	교양교육의 행·재정 지원	교양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도	교양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분반수, 강의계획서, 수업방법 및 평가도구 적용)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교육과정 성과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선	교양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평가 준거는 교육과정의 단편적인 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원, 운영, 성과 및 개선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중 교육과정 지원영역은 담당교원 수, 담당교수의 교수학습 교육 참여율, 교육지원 집행내역 등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영역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단계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국내 타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P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기존의 설문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연구 흐름도

2. 연구 대상

가. 교육과정 분석대상 국립대학

P 대학과 교육환경이 비슷한 대학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립대학 '가'군 중에서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인 국립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로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있다. 각 대학의 대학 교육목표 및 교양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였다.

나. P 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부산에 소재한 P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학생기획평가단 분석보고서 자료 중 교양 평가항목의 만족도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생기획평가단 활동은 2021년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2주에 걸쳐 온라인 또는 대면을 통한 개별 면담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평가단 학생은 69명이며, 객관식 문항 응답자 수 1,235명, 주관식 문항 응답자는 총 1,237명이었다.

<표 Ⅲ-1> 학생기획평가단 현황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9명	32명(46.4%)	37명(53.6%)	2명 (2.9%)	14명 (20.3%)	42명 (60.9%)	11명 (15.9%)

<표 Ⅲ-2> 학생기획평가단 단과대학별 현황

전체	단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미래융합대학	글로벌자율전공
69명	18명	5명	7명	19명	9명	5명	4명	2명

<표 Ⅲ-3>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비율
전체		1,235	100%
학년	1학년	205	16.6%
	2학년	358	29.0%
	3학년	439	35.5%
	4학년	233	18.9%
성별	남자	531	43.0%
	여자	704	57.0%
단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306	24.8%
	경영대학	119	9.6%
	자연과학대학	113	9.1%
	공과대학	362	29.3%
	수산과학대학	142	11.5%
	환경해양대학	78	6.3%
	미래융합대학	78	6.3%
	글로벌자율전공학부	37	3.0%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31명(43%), 여자 704명(57%)으로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학년은 1학년 205명(16.6%). 2학년 358명(29.0%), 3학년 439명(35.5%), 4학년 233명(18.9%)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29.3%), 인문사회과학대학(24.8%), 수산과학대학(11.5%) 순이다.

<표 Ⅲ-4> 단과대학별 학과 현황

단과대학	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공업디자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지역학부, 법학과, 사학과, 사회복지융합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어영문학부, 유아교육학과, 일어일문학부, 정치외교학과, 중국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행정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통상학부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화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부,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의공학과, 인쇄정보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수산과학대학	생물공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자원생물학과,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수산경영학과
환경해양대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생태공학과, 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대기과학과
미래융합대학	공공안전경찰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평생교육・상담학과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과

3. 연구도구

가. 측정도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강지혜, 손복은(2021)의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기존의 설문조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성과 및 개선 영역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설문 문항은 인식, 구성, 교과목, 수업 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강지혜, 손복은(2021)의 평가준거를 토대로 개발, 지원, 운영, 성과 및 개선으로 영역으로 분류 및 재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4문항, 운영 2문항, 성과 및 개선 4문항으로 재배치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유형은 5점 척도 문항,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 문항은 리커트(Likert) 척도 방식을 따랐으며 '매우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않다(2점)', '전혀그렇지않다(1점)' 순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표 Ⅲ-5>, <표 Ⅲ-6>과 같다.

<표 Ⅲ-5> 객관식 설문문항

영역	내용	문항
개발	핵심역량 연계성	우리 대학의 6대 핵심역량(주도적학습, 통섭적사고, 확산적연계, 문화적포용, 협력적소통, 사회적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 교과목이 균형있게 편성되어 있다.
		핵심역량별 교양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구성	미래산업 및 사회적 추세, 현실문제 등을 반영한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양 교과목이 개설 또는 개선되고 있다.
운영	충실도	수업목표와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양 수업의 분반 운영이 대체적으로 균질적이다.
성과 및 개선	성과	교양교육을 통해 전공 이외의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교양교육을 통해 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역량을 기를 수 있다.
	개선	수업 진행에서 교수와 학생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의견을 반영(중간 강의평가 등)하여 지속적인 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6> 주관식 설문문항

영역	내용	문항
개발	핵심역량 연계성	우리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에 대해 좋은점,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6대 핵심역량(주도적학습, 통섭적사고, 확산적연계, 문화적포용, 협력적소통, 사회적실천)
	구성	우리 대학의 교양 교과목에 대해 좋은점,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운영	충실도	우리 대학의 교양 수업운영에 대해 좋은점,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성과 및 개선	개선	우리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해 좋은 점,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나. 신뢰도 분석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은 0.921, 운영 0.775, 성과 및 개선은 0.87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수치인 0.6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양호한 값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7> 신뢰도 분석 결과

영역	문항 수	Cronbach's Alpha
개발	4	0.921
운영	2	0.773
성과 및 개선	4	0.875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4. 분석 방법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문헌분석과 국립대학의 교육과정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교육과정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문구를 살펴보기 위해 Python 3.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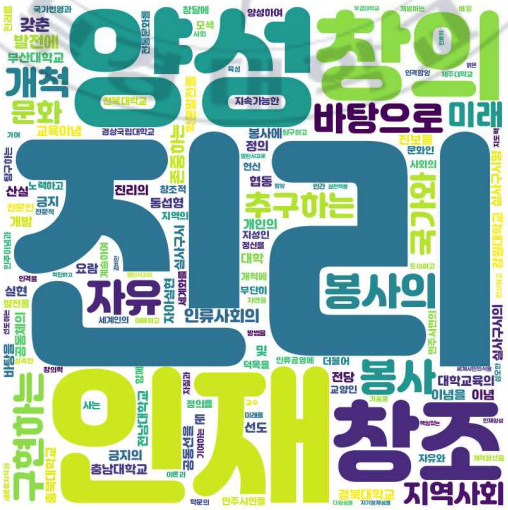
학생기획평가단의 보고서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Statistics2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하지만 원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여 학과별 평균값을 원 데이터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단과대학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국립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비교

가. 교육의 이념 및 인재상

본 장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학칙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문구들을 살펴보았다. 각 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은 <표Ⅳ-1>, <표Ⅳ-2>와 같다. 교육이념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그림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문구는 '진리(6회)', '봉사(5회)', '인재양성(5회)', '창조(4회)'와 같은 단어임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목표는 전인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교육이념 워드클라우드

<표 Ⅳ-1> 대학교육의 이념

대학	대학교육의 이념
경북대학교	교육이념: 진리, 긍지 봉사의 실현 교육목표: 진리의 전당, 긍지의 요람, 봉사의 산실
부산대학교	교육이념: 진리, 자유, 봉사 교육목표: 통섭형 인재 양성
충남대학교	교육이념: 창의, 개발, 봉사에 바탕을 둔 인재
전남대학교	교육이념: 진리, 창조, 봉사
강원대학교	교육이념: 실사구시 교육목표: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의 진보를 구현하는 실사구시형 창의·협동 인재 양성
충북대학교	교육이념: 진리, 정의, 개척 교육목표 학문발전을 선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미래 개척에 헌신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
전북대학교	교육이념: 자유, 창의, 창조 교육목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춘 교양인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는 지성인 진리를 부단히 탐구하는 창조적 전문인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지역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문화인 국가번영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자질과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

경상국립 대학교	교육이념: 개척 교육목표 민주이념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방법을 교수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
제주대학교	교육목표 인간, 사회,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함양 새로운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적 창의력 배양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력 육성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
부경대학교	교육이념: 열린사고로 인류의 밝은 미래 창조 교육목적: 열린사고와 책임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양성

인재상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며, 각 학교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각 학교에서는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가며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제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색을 반영하여 바람인, 오름인, 바다인으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경주의 역사인 신라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청주의 문화유산인 직지심체요절의 정신을 품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Ⅳ-2> 대학교육의 인재상

대학	인재상
경북대학교	첨성인 :첨성대를 세운 신라인의 진리탐구, 긍지추구, 봉사실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재
부산대학교	개방적 지식인, 창의적 지식인, 봉사하는 지식인, 글로벌 전문인
충남대학교	미래혁신주도형 STRONG 창의인재
전남대학교	창의적인사람, 감성적인 사람, 함께하는 사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형 창의·협동 인재
충북대학교	직지의 창의정신을 품은 개신인으로서 진리인, 정의인, 개척인
전북대학교	큰사람 형세나 위기가 대단하여 당당하며, 버젓하고 올곧으며, 여기에 너그러움을 갖춘 어엿한 사람
경상국립대학교	禮·智·學 겸비한 개척인
제주대학교	WHO인재상(제주의 역사·지역적 특색 반영) - 소통하는 바람인(Wind) 도전하는 오름인(Hill) 포용하는 바다인(Ocean)
부경대학교	부경인 역사를 성찰하고 사람을 공경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나.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교양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대학에서 설정한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핵심역량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의 <표 Ⅳ-3>를 통해 각 대학이 지향하는 핵심역량과 이에 따른 하위능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그림5]와 같이 '창의(11회)', '소통 및 의사소통(9회)', '글로벌(6회)'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 대학에서는 '문제해결(5회)', '융복합(4회)', '융합(4회)' 역량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핵심역량 워드클라우드

<표 Ⅳ-3> 대학교육의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대학	대학교육의 핵심역량	하위요소
경북대학교	창의	창의문제제기 및 해결능력, 상상력, 실험정신
	융합	학제적-통합적 사유능력, 응용력, 전공심화능력
	비판	논리적 사유능력, 문제제기 및 대안모색능력, 반성적 숙고 능력
	탐색	집중(몰입)능력, 호기심과 끈기, 추리력
	소통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국제화 수용력
	책임	협동심, 연대의식, 리더십, 사회적 책임감
부산대학교	글로벌 문화, 소통, 융복합, 응용, 봉사, 인성, 기초지식, 고등사고	
충남대학교	자기관리	전공지식 탐구, 융복합지식 활용, 미래 ICT 주도력
	의사소통	창의적문제해결
	대인관계	창의적문제해결
	창의·융합	융복합 지식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미래 ICT 주도력
	인성	윤리지향성, 지속가능성
	글로벌	윤리지향성, 지속 가능성
전남대학교	창의	융합역량, 문제발전 해결역량, 컴퓨팅사고역량
	감성	인문역량, 문화예술역량, 놀이역량
	공동체	자기설계역량, 시민역량, 글로컬역량

강원대학교	미래	학제성 역량, 글로컬역량, CPS 활용 역량
	인성	지성 역량, 덕성 역량, 감성 역량
	창의	상상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협동	소통 역량, 배려 역량, 리더십 역량
	실천	자기주도성 역량, 목표지향성 역량, 모험성 역량
충북대학교	진리	창의성, 전문성
	정의	휴머니즘, 공동체
	개척	능동성, 글로벌
전북대학교	당당함	도전역량, 실무역량
	올곧음	창의역량, 문화역량
	너그러움	인성역량, 소통역량
경상국립대학교	의사소통	전달과 표현, 공감과협력
	세계시민	글로벌, 공동체
	창의융합	자원활용, 통합사고
	문제해결	지식탐구 활용, 합리적 의사결정
	도전정신	진취성, 리더십
	자기주도	자기개발 관리, 자기주도학습
제주대학교	의사소통, 더불어 같이+, 문제탐구, 도전성취, 글로벌다문화, 창의융복합	-
부경대학교	주도적 학습	목표 수립, 자기 관리
	통섭적 사고	지식 탐색, 정보 통합
	확산적 연계	관점 확장, 창의적 해결
	협력적 소통	의사 표현, 의사 조율
	문화적 포용	문화의 이해, 글로벌 감각
	사회적 실천	공동체 의식, 사회공헌

다.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의 목적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각 대학에서는 <표Ⅳ-4>와 같이 교양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표 Ⅳ-4> 교양교육의 목적

대학	목적
경북대학교	대학교육의 이수에 전제되어야 할 기본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을 키우며, 나아가 학문 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 이를 통해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안목을 지니고서 시대와 소통하는 건강하고 책임성 있는 지성인을 길러내고자 한다.
부산대학교	기초지식 강화, 창의적 사유 강화, 글로벌 능력 강화
충남대학교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
전남대학교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강원대학교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충북대학교	학문탐구의 기본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 및 역량을 갖춘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	기초학문 중심의 보편적·핵심적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한 창의융복합 지성인 양성
경상국립대학교	기초학문분야 지식습득과 인격도야
제주대학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적 교양인 육성 종합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문인 육성 융복합적 사고에 바탕을 둔 창의적 지성인 육성 지역사회 및 세계와 소통하는 도전적 세계인 육성
부경대학교	목적: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수학능력 및 덕성을 갖추고 인간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학문분야의 지적 소양을 고르게 함양하여 대학에서의 지적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및 세부영역

교양교육과정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중핵교육과정과 배분이수 교육과정으로 대표된다(백승수, 2019b).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따르면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인 대영역으로 분류 후 중핵교육과정과 배분이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목표에 기반한 교육내용은 교과로 조직화되고 교과는 교육과정으로 구조화된다(백승수, 2019b). 따라서 교육과정의 세부영역을 통해 대학이 교양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목표점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Ⅳ-5>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대학	영역		교양교육과정의 세부영역
경북대학교	첨성인기초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실용영어, 소프트웨어
	첨성인 핵심	인문사회	언어와 문학, 사상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제도, 외국어
		자연과학	수리, 기초과학, 자연과 환경
	첨성인소양		예술과 문화, 사상과 제도, 지역과 세계, 자연과 기술, 생활과 건강, 진로와 취업
부산대학교	교양필수		열린사고와 표현, 대학영어, 컴퓨팅사고와 인공지능, 고전읽기와 토론, 공학작문 및 발표(공학교육인증관련 학과)
	교양선택		사상과 역사, 사회와 문화, 문학과 예술, 과학과 기술, 건강과 레포츠, 외국어, 융복합, 효원브릿지
충남대학교	공통기초교양		기초글쓰기, Global English1~4,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
	핵심교양		자기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창의융합, 인성, 글로벌 (6개 역량별 핵심교양 교과목 중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교과목)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중 학과별 지정 교과목
	일반교양		언어문화, 역사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복합

전남 대학교	역량교양	창의, 감성, 공동체
	기초교양	기초과학, 기초도구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자연과기술, 생활과예술, 표현과소통, 진로와창업
강원 대학교	기초교양	국어: 글쓰기와 말하기(인문사회), 글쓰기와 말하기(자연공학) 영어: 의사소통영어(듣기, 말하기), 의사소통영어(읽기, 쓰기) 컴퓨터: 컴퓨팅 사고력(일반), 컴퓨팅 사고력(공학)
	균형교양	균형교양: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과 건강
	특화교양	미래준비, 융복합
	대학별교양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지정
충북 대학교	개신기초 교양	인성과 비판적사고, 의사소통, 영어, 정보문해
	일반교양	인간과문화, 사회와 역사, 자연과 과학
	확대교양	미래융복합, 국제화, 진로와 취업, 예술과 체육
	자연이공계기초 과학	학과단위로 교과목 지정
전북 대학교	기초교양	문해력(고전 명저읽기), 사고력(비판적사고와토론, 통계적사고와 사회, 컴퓨팅사고와인간), 표현력(글쓰기, 기초영어, 실용영어)
	핵심교양	자연, 사회, 인간
	일반교양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리/정보, 예술/체육, 신입생정착/학생지도

경상 국립 대학교	역량교양	필수: 대학영어1,2, 글쓰기 기초 선택: 비판적사고, 수리통계적사고, GNU인성, 글쓰기심화, 발표와 토론, 컴퓨팅사고와코딩, 영어읽기와토론
	통합교양	문학과문화,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생명과환경, 과학과기술, 예술과체육, 융복합영역
	개척교양	진로취업, 창업산학협력, 기타
	기초과정	외국어영역, 인문사회영역, 자연영역, 선이수교과영역
제주 대학교	기초역량교양	글쓰기, 논리적사고, 외국어, 소프트웨어
	핵심역량교양	의사소통, 문제탐구, 도전성취, 창의융복합, 글로벌다문화, 더불어 같이+
부경 대학교	핵심교양	지역사회봉사, 대학생활과인권, 사유와글쓰기, 컴퓨팅사고, 대학영어
	균형교양	언어와문학,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지역과세계, 문화와 예술, 자연과기술
	확대교양	생활과건강, 진로와취업, 학문토대

※ 2021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기준

강창동(2012)은 교양교육과정의 영역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속성을 실제로 살펴보면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표 Ⅳ-5>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영역은 구체적인 명칭과 영역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교양 필수, 기초교양, 선택 교양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영역 구분의 명칭을 통해 대학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첨성인 기초' 영역에서 '독서와 토론', '사고교육', '글쓰기' 중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첨성인 핵심' 영역 중 '인문사

회’ 영역에서 3학점, ‘자연과학’ 영역에서 3학점을 이수하여 학문적인 편식을 경계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 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교양필수, 교양선택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이 되어 있다. 교양선택의 경우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편성이 되어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교양교과목의 영역에서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핵심교양 ’영역에서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핵심역량을 학생들이 최소 3개 역량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별 특수성을 반영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구현되어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역량교양 영역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3학점씩 9학점 이상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실현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인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특화 교양’ 영역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과목 개발뿐만 아니라 융복합영역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융·복합적 핵심역량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기초교양, 일반교양, 확대교양, 자연이공계 기초과학영역으로 나누어 편성되어져 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 계열로 나누어 이수 기준학점이 다른 점을 토대로 계열별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세부영역을 통해 본 대학이 추구하는 교양교육의 목적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기초교양, 핵심교양, 일반교양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대학에서는 학생지도를 하나의 교과목이 아닌 일반교양의 세부영역으로 신입생 정착을 구분한 점으로 보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역량교양, 통합교양, 개척교양, 기초과정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수하게 되어있다. 역량교과의 경우 필수과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하게 되어있으며, 선택과목의 경우 2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통합교양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로 기본이수학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개척 교양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편성한 점이 특징으로 여겨진다.

제주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기초역량교양'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초역량교양에서 함양된 6대 핵심역량의 기반을 심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핵심역량교양'영역을 설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에서는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부경대학교에서는 핵심교양, 균형교양, 확대교양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 짓고 있다. 핵심교양의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이다. 균형교양의 경우 각 세부영역 중 1과목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배분된 교양영역이다.

각 대학의 교과목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으로는 컴퓨팅사고, 글쓰기, 영어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핵심역량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구인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역량과 매우 부합한다.

마. P 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현황

P 대학 학생들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P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1) P 대학 핵심역량 도입 변천사

P 대학의 핵심역량은 <표Ⅳ-6>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P 대학의 핵심역량 및 인재상은 2019년 중장기발전계획 PKNU 2030 4R로 수정이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기존 핵심역량은 [그림6]과 같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장보고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문제해결, 융합, 글로벌역량 배양을 위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림 6] 2015년 P 대학 핵심역량

P 대학의 핵심역량은 2019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정되면서 비전과 인재상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공헌이라는 두 가치를 지향하였다. 개인의 성장 영역에서는 주도적 성장, 통섭적 사고, 확산적 연계, 사회적 공헌 가치에서는 협력적 소통, 문화적 포용, 사회적 실천으로 역량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6대 역량은 6대 전략과 매칭되어 특화, 융합, 확산, 소통, 지역, 사회와 매칭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표 Ⅳ-6> P 대학의 핵심역량 및 정의

핵심역량	하위 요소	역량 정의
주도적 학습	목표 수립	학습자 스스로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역량
	자기 관리	
통섭적 사고	지식 탐색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분산된 자원과 정보를 종합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정보 통합	
확산적 연계	관점 확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관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창의적 해결	
협력적 소통	의사 표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역량
	의견 조율	
문화적 포용	문화 이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역량
	글로벌 감각	
사회적 실천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사회 공헌	

(2) 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

2021학년도 P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았을 때, 핵심교양, 균형교양, 확대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기획평가단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핵심교양은 P 대학의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5개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졸업 이수 기준에 필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형교양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인 영역을 고루 이수하고자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6개 영역(언어와문학,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지역과세계, 문화와예술, 자연과기술)으로 편성되어 있다. 확대교양은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 자기개발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이루어져있어 3개 영역(생활과건강, 진로와취업, 학문토대)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목 이수방식은 중핵교육과정의 필수이수제, 부분필수제,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 중 선택이수제, 그리고 자유선택제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교양으로 지역사회봉사, 대학생활과 인권, 사유와글쓰기, 컴퓨팅사고, 대학영어를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균형교양으로 6가지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자유롭게 선택하여 18학점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학문영역 배분이수제 중 선택이수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확대교양 중 학문토대 영역은 중핵교육과정 중 부분필수제로 학과에서 필수교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수해야하며, 생활과건강, 진로와취업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선택제임을 알 수 있다.

<표 Ⅳ-7>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학점

구분	이수방식	영역	교과목명	최소기준	
				기준	학점
핵심교양	중핵교육과정 -필수이수제	인성	지역사회봉사	필수	1학점
			대학생활과인권	필수	1학점
		학문도구	사유와글쓰기	필수	2학점
			컴퓨팅사고	필수	2학점
			대학영어	필수	2학점
균형교양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 -선택이수제	언어와문학	-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8학점이상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지역과세계			
		문화와예술			
		자연과기술			
확대교양	자유선택제	생활과건강	-	자율선택	
		진로와취업			
	중핵교육과정 -부분필수제	학문토대		학과지정과목 이수	
최소이수학점				40학점	

2.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가. 개발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교양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연계성을 가졌는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정도의 분석결과는 <표 Ⅳ-8>과 같으며, 전체 평균은 3.85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개발 중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에 따른 분석결과의 평균은 3.92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구성의 측면에서는 평균 3.79로 전체보다 0.0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P 대학의 학생들은 '핵심역량별 다양하게 개설(3.95)', '핵심역량별 균형 있게 편성(3.89)'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3.81)', '학생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3.76)'으로 구성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객관식 응답

영역	내용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개발	핵심역량 연계성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양교과목이 균형있게 편성	3.89	.55
		핵심역량별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	3.95	.46
	소계		3.92	.48
	구성	미래산업 및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3.81	.55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3.76	.51
	소계		3.79	.49
전체			3.85	.47

나. 단과대학 별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단과대학 별 분석 결과는 <표 Ⅳ-9>, <표 Ⅳ-10>과 같다. 1개의 데이터가 있는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경우 제외 후,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핵심역량 연계성

<표 Ⅳ-9> 단과대 간의 개발영역의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차이

집단구분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인사대	16	3.68	.29	.474	.825	-
경영대	2	3.64	.04			
자연대	7	3.84	.20			
공과대	25	3.75	.68			
수산대	9	4.09	.36			
환해대	8	3.81	.54			
미융대	4	3.68	.20			

(2)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구성

<표 Ⅳ-10> 단과대 간의 개발영역의 구성 인식 차이

집단구분	구성 인식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인사대	16	3.68	.31	.758	.606	-
경영대	2	3.64	.09			
자연대	7	3.84	.30			
공과대	25	3.75	.67			
수산대	9	4.09	.44			
환해대	8	3.81	.46			
미융대	4	3.68	.13			

다. 개발영역에 대한 서술형 응답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은 좋은 점, 문제점, 개선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Ⅳ-11>, <표 Ⅳ-12>, <표 Ⅳ-13>와 같다.

(1)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좋은 점

교양교육과정 개발 중 핵심역량과의 연계성과 관련된 좋은 점의 답변은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 접할 수 있음(39.5%),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만족(13.4%),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10.5%)를 차지하였다.

교양교과목 구성의 설문 문항에서는 다양한 과목 수강이 가능하다(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Ⅳ-11>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좋은 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핵심역량 연계성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 접할 수 있음	109	39.5%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만족함	37	13.4%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됨	29	10.5%
	균형 있는 학습가능	20	7.2%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편성됨	16	5.8%
	긍정적인 평가	15	5.4%
	자율성 보장	14	5.1%
	기본소양 쌓을 수 있음	9	3.3%
	강의 수준 좋음	8	2.9%
	전공에 도움이 됨	7	2.5%
	트렌드 반영	6	2.2%
	흥미로운 분야	6	2.2%
	합계	**276**	**100%**

교양 교과목 구성	다양한 과목 수강	245	54.9
	긍정적인 평가	32	7.2
	트렌드 반영	30	6.7
	실용적인 수업 개설	23	5.2
	흥미로운 분야	17	3.8
	자율성 보장	16	3.6
	원활한 의사소통	16	3.6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함	15	3.4
	비대면 수업에 만족	15	3.4
	전공 과목에 도움 됨	10	2.2
	수업 방식이 좋음	10	2.2
	교수님 열의가 있음	5	1.1
	역량강화	3	0.7
	기타	9	2.0
	합계	**446**	**100%**

(2)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문제점

핵심역량 연계성과 관련된 문제점의 답변은 안내 및 홍보 부족(30%), 잘 모름(7.2%), 역량 구분 필요성 부족(6.1%)과 같이 핵심역량 연계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이 457건 중 213건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교과목 구성과 관련된 답변은 과목의 다양성 부족(17%), 수요 및 트렌드 미반영(13.2%)이 471건의 답변 중 142건인 3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일 높은 문제점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강의 정원부족(18.7%)을 운영의 문제점으로 분류한다면, 제일 높은 문제점으로 판단 된다.

<표 Ⅳ-12>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문제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핵심역량 연계성	안내 및 홍보 부족	137	30.0%
	핵심역량기반 교육 불만족	62	13.6%
	과목 다양성 부족	43	9.4%
	잘 모름	33	7.2%
	영역 구분 필요성 부족	28	6.1%
	강제성	23	5.0%
	부정적 평가	19	4.2%
	실질적 도움이 안됨	15	3.3%
	항목별 교양 수 차이	14	3.1%
	일방적 강의	12	2.6%
	의사소통 안됨	10	2.2%
	필요성 부족	9	2.0%
	교육체계가 적절하지 않음	8	1.8%
	강의 정원 부족	7	1.5%
	불편함	7	1.5%
	코로나 관련 문제	5	1.1%
	교수님간 격차 심함	5	1.1%
	시간표 문제	5	1.1%
	강의 참여도 문제	4	0.9%
	전공 수준의 강의	3	0.7%
	교육과정의 잦은 변화	2	0.4%
	실습활동 부족	2	0.4%
	응용기회 부족	2	0.4%
	학점 경쟁 심함	2	0.4%
	기타	31	6.8%
	합계	**457**	**100.0**

교양 교과목 구성	인기 강의 정원부족	88	18.7
	과목 다양성 부족	80	17.0
	수요 및 트렌드 미반영	62	13.2
	강제성	37	7.9
	교수 및 강의 수준이 낮음	21	4.5
	비슷한 시험 및 강의	15	3.2
	일반향적 강의	14	3.0
	과제량 많음	12	2.5
	정보 및 안내 부족	11	2.3
	수업 방식 나쁨	10	2.1
	시간표 문제	10	2.1
	학점 채우기용 과목	9	1.9
	실생활에 도움이 안됨	9	1.9
	예체능 교양 수강 불가	8	1.7
	개편에 대한 변화 없음	7	1.5
	부정적 평가	7	1.5
	출석 반영이 낮음	6	1.3
	전공 수준의 강의	6	1.3
	핵심역량 잘 모름	5	1.1
	소통 원활하지 않음	3	0.6
	교수님에 따른 평가 방식 차이	3	0.6
	실습 교양 부족	2	0.4
	채점 기준 명확하지 않음	2	0.4
	기타	44	9.3
	합계	**471**	**100.0**

(3)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개선점

핵심역량 연계성과 관련된 개선점의 답변은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필요(34.6%),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5.1%)으로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의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역량 교육 및 교과목 조회 프로그램 개선(2.2%), 교양 영역 구분 줄이기(1.3%), 카테고리 개선(0.6%)를 차지하고 있다.

교양교과목 구성과 관련된 개선점의 답변은 다양한 교과목 개설(29.2%), 트렌드 반영한 교과목 개설(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율적 선택보장 (1.2%), 필수교양 축소(0.6%) 등 교양교과목 구성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13>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 개선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핵심역량 연계성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필요	109	34.6%
	수업 방식 개선	37	11.7%
	다양한 교과목 개설	29	9.2%
	수업정원 및 분반확대	20	6.3%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	16	5.1%
	자율적 선택보장	15	4.8%
	핵심역량 개선 필요	14	4.4%
	원활한 소통필요	9	2.9%
	수업수준 개선	8	2.5%
	역량교육 및 교과목 조회 프로그램 개선	7	2.2%
	교육과정 개선	6	1.9%
	의견반영한 교양 개설	6	1.9%
	코로나 관련	5	1.6%
	성적 평가 방식 개선	5	1.6%
	이수학점 관련	5	1.6%
	교양 영역 구분 줄이기	4	1.3%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4	1.3%
	카테고리 개선	2	0.6%
	학생들간 교류	2	0.6%
	수업참여도 개선	2	0.6%
	기타	10	3.2%
	합계	**315**	**100.0%**

교양 교과목 구성	다양한 교과목 개설	97	29.2
	분반 및 수강정원 확대	64	19.3
	트렌드 반영한 교과목 개설	51	15.4
	적극 안내 및 홍보	45	13.6
	수업 수준 개선	19	5.7
	수업방식 개선	12	3.6
	교수의 역량강화	9	2.7
	성적평가 방식 개선	8	2.4
	원활한 의사소통	6	1.8
	자율적 선택 보장	4	1.2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4	1.2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필요	3	0.9
	필수교양 축소	2	0.6
	기타	8	2.4
	합계	**281**	**100.0**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3.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한 인식

가. 운영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의 영역은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문항이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운영, 교과목의 분반 수, 다양한 교수법 활용에 대한 인식은 이 영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교양교육과정 운영 충실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Ⅳ-14>와 같다. 전체 평균 4.16이었으며, 이는 '그렇다(4점)'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은 평균이상(4.20)'이었으며, '분반 운영이 균질성(4.12)'은 이보다 조금 낮았다.

<표 Ⅳ-14>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객관식 응답

영역	내용	문항	평균	표준편차
운영	충실도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	4.20	.47
		분반 운영이 균질적	4.12	.48
전체			4.16	.43

나. 단과대학 별 운영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단과대학 별 교양교육과정 운영 충실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Ⅳ-15>와 같다. 1개의 데이터가 있는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경우 제외 후,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F=1.058, p=.397로 나왔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15> 단과대 간의 운영영역의 충실도 인식 차이

집단구분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인사대	16	4.16	.15	1.058	.397	-
경영대	2	4.16	.15			
자연대	7	4.02	.25			
공과대	25	4.10	.59			
수산대	9	4.41	.21			
환해대	8	4.33	.47			
미융대	4	3.94	.26			

다. 운영영역에 대한 서술형 응답

(1)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의 좋은 점

P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의 좋은 점은 <표 Ⅳ-16>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술형 응답을 통해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보다 수업내용에 대한 답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 답변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따른 진행(13.3%), 수업 시간이 다양함(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 내용적인 면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 가능(20.5%), 긍정적인 평가(19.3%), 교수님의 강의 만족(5.3%),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음(8.0%)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6>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좋은 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운영 충실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 가능	82	20.5%
	긍정적인 평가	77	19.3%
	강의계획서에 따라 진행	53	13.3%
	학생들의 의견 반영	43	10.8%
	부담없이 들을 수 있음	32	8.0%
	수업 방식이 좋음	22	5.5%
	교수님의 강의 만족(열정, 노력 등)	21	5.3%
	소통이 잘 이루어짐	11	2.8%
	강의 수준 만족	10	2.5%
	수업시간이 다양함	9	2.3%
	다양한 친구와 사귈 수 있음	8	2.0%
	균형있는 학습 가능	7	1.8%
	강의 평가 반영	6	1.5%
	온라인 수업 만족	5	1.3%
	분반으로 나누어 수강 가능	4	1.0%
	코로나 관련 긍정적 의견	3	0.8%
	전공 과목에 도움	2	0.5%
	자율성 보장	2	0.5%
	기타	3	0.8%
	합계	**400**	**100.0%**

(2)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의 문제점

P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의 문제점 답변은 다른 서술형 응답보다 건수가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편이었다. <표 Ⅳ-17>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원활하지 않음(1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수법에 대한 문제점(8.5%)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Ⅳ-17>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문제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운영 충실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53	11.9%
	교수님의 열정과 강의 질이 낮음	38	8.5%
	교수님 별 차이가 심함	34	7.6%
	인기 강의 정원 부족	30	6.7%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26	5.8%
	강의평가 반영 부족	24	5.4%
	수업의 수준이 낮음	23	5.2%
	강의계획서 대로 진행되지 않음	22	4.9%
	학생들 의견 트렌드 반영이 부족	21	4.7%
	과목 다양성 부족	19	4.3%
	저학년이 많음	16	3.6%
	비슷한 시험 및 강의	16	3.6%
	동영상 강의 재사용 및 수준 저하	15	3.4%
	시험 및 성적 관련 불만	15	3.4%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	13	2.9%
	수업 방식의 문제	11	2.5%
	강제성	9	2.0%
	코로나 관련 문제	9	2.0%
	정보 및 안내부족	8	1.8%
	부정적 평가	6	1.3%
	학점 채우기용 과목	6	1.3%
	시간표 문제	5	1.1%
	과제가 너무 많음	5	1.1%
	기타	22	4.9%
	합계	**446**	**100.0%**

(3)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의 개선점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인 교과목 구성 측면의 답변(다양한 분야 과목 개설11.7%, 수요 및 트렌드 반영한 과목 개설 10.0%)을 제외하면, 교수법과 관련된 강의 방식 개선(11.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담으로도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6.8%)로 수업 운영에 있어 교수자와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를 제안하였다.

<표 Ⅳ-18>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 개선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운영 충실도	다양한 분야 과목 개설	33	11.7%
	강의 방식 개선	32	11.4%
	수요 및 트렌드 반영한 과목 개설	28	10.0%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	19	6.8%
	강의평가 관련 개선	18	6.4%
	성적 평가 방식 개선	17	6.0%
	영상 재사용 금지 필요	16	5.7%
	고학년 필수교양 지정	16	5.7%
	평가 기준 획일화 필요	13	4.6%
	강의정원 및 분반 확대	12	4.3%
	분반 시 형평성 보장	10	3.6%
	강의계획서 반영	8	2.8%
	수업 수준 개선	8	2.8%
	적극적 피드백	7	2.5%
	동영상 강의 개선	6	2.1%
	학점 부여 방식 개선	5	1.8%
	자율적 선택 필요	4	1.4%
	홍보 및 안내	4	1.4%
	코로나 관련	3	1.1%
	기타	22	7.8%
	합계	**281**	**100.0%**

4.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영역에 대한 인식

가. 성과 및 개선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표 Ⅳ-19>는 학생들이 교양교육과정으로 얻는 성과와 개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괏값이다. 전체 평균은 4.16으로 다소 높은 결과로 나왔다. 성과의 평균은 4.15이며, 개선에 대한 평균은 이보다 낮은 3.80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공 이외의 분야를 경험(4.22)'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역량을 기를 수 있음.'(4.07)이 다음으로 평균이 높다.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함.'(3.87), '학생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됨.'(3.73)으로 개선의 면에서는 성과보다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객관식 응답

영역	내용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성과 및 개선	성과	전공 이외의 분야를 경험	4.22	.41
		기본역량을 기를 수 있음.	4.07	.41
	소계		4.15	.36
	개선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3.87	.47
		학생 의견이 적절히 반영	3.73	.50
	소계		3.80	.46
전체			4.16	.43

나. 단과대학 별 성과 및 개선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단과대학 별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영역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0>, <표 Ⅳ-21>과 같다. 1개의 데이터가 있는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단과대학 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영역의 성과

<표 Ⅳ-20> 단과대 간의 성과 및 개선영역의 성과 인식 차이

집단구분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인사대	16	4.08	.31	1.059	.190	-
경영대	2	4.09	.02			
자연대	7	4.11	.26			
공과대	25	4.09	.45			
수산대	9	4.36	.20			
환해대	8	4.38	.39			
미융대	4	3.95	.19			

(2)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영역의 개선

<표 Ⅳ-21> 단과대 간의 성과 및 개선영역의 개선 인식 차이

집단구분	핵심역량 연계성 인식					
단과대학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분석
인사대	16	3.87	.31	.881	.514	-
경영대	2	3.86	.17			
자연대	7	3.79	.39			
공과대	25	3.75	.58			
수산대	9	4.07	.35			
환해대	8	3.63	.56			
미융대	4	3.62	.14			

다.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한 서술형 응답

(1)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의 좋은 점

<표 Ⅳ-22>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교양교육에 대해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음(64.2%)으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음(4.9%), 사고력/시야/견문 확장(1.9%)과 같이 교양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2>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좋은 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 접할 수 있음	370	64.2%
	기본 소양 쌓을 수 있음	28	4.9%
	긍정적인 평가	23	4.0%
	전공 수업에 도움이 됨	22	3.8%
	전공에 비해 부담이 없음	18	3.1%
	자율성 보장	16	2.8%
	균형있는 학습 가능	11	1.9%
	사고력/시야/견문 확장	11	1.9%
	흥미로운 분야	11	1.9%
	다양한 경험	8	1.4%
	온라인 강의	8	1.4%
	열정적인 수업	7	1.2%
	지식 함양	7	1.2%
	수업 방식이 좋음	5	0.9%
	실습과목이 있음	4	0.7%
	적절한 체계	4	0.7%
	원활한 의사소통	4	0.7%
	다른과 학생과 교류	3	0.5%
	강의자료 우수	3	0.5%
	의견 반영이 잘됨	3	0.5%
	학점 받기 쉬움	3	0.5%
	기타	7	1.2%
	합계	**576**	**100.0%**

(2)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의 문제점

<표 Ⅳ-23>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문제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과목의 다양성 부족	85	15.9%
	강의 수준 낮음	75	14.0%
	강의 정원 부족	59	11.0%
	강제성	41	7.6%
	성적 평가 및 시험	28	5.2%
	학점 이수 목적	24	4.5%
	비대면 수업 방식	20	3.7%
	인기 과목 수강 어려움	20	3.7%
	전공 과목 부담	17	3.2%
	수업 방식 나쁨	16	3.0%
	정보 및 안내 부족	13	2.4%
	흥미롭지 않음	10	1.9%
	부정적 의견	9	1.7%
	학점 부담이 큼	9	1.7%
	수강인원 부족	9	1.7%
	트렌드 미반영	8	1.5%
	실질적 도움 안됨	8	1.5%
	비슷한 시험 및 강의	8	1.5%
	실습 및 체험활동 부족	5	0.9%
	졸업학점 충족 어려움	5	0.9%
	코로나 관련	4	0.7%
	특정 과목에 몰림	4	0.7%
	수강취소 안됨	3	0.6%
	필요성 부족	3	0.6%
	학과 시간표와 안 맞음	3	0.6%
	1학년에 교양 몰려있음	2	0.4%
	기타	48	9.0%
	합계	**536**	**100%**

P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의 문제점 답변은 교양교육과정 개발 중 교과목 구성의 답변(과목의 다양성 부족 15.9%)을 제외하면 교수법과 관련된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의 질적인 문제(14.0%), 비대면 수업 방식(3.7%), 교수법의 문제(3.0%)를 통해 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또한 강제성(7.6%), 학점 이수 목적(4.5%)를 통해 교양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의 개선점

P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의 문제점 답변은 교양교육과정 개발 중 교과목 구성의 답변(다양한 과목 개설 24.5%)을 제외하면 자율적인 선택 보장(10.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양교육 영역 구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평가 관련 개선(6.9%)이 성과 및 개선 영역의 개선점으로 그다음 많은 답변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24>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 개선점

설문문항	답변	응답건수	비중
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다양한 과목 개설	71	24.5%
	자율적 선택 보장	30	10.3%
	과목 선호도 반영	28	9.7%
	강의평가 관련 개선	20	6.9%
	수업 방식 개선	18	6.2%
	인기 과목 수강정원 확대	16	5.5%
	적극적 안내 및 홍보	16	5.5%
	교육의 질 개선필요	16	5.5%
	필수교양 축소	12	4.1%
	수업 정원 및 분반 확대	11	3.8%
	교양학점 개선	9	3.1%
	강의정원 증가	8	2.8%
	코로나 관련	5	1.7%
	교양수업 난이도 조정	5	1.7%
	트렌드 반영	5	1.7%
	과목 체험	4	1.4%
	교양에 알맞은 환경 제공	3	1.0%
	원활한 의사소통 지향	2	0.7%
	기타	11	3.8%
	합계	**290**	**100%**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P 대학 학생들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해 현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교양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대학 교양교육과정 비교

첫째, 대학의 교육이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진리', '봉사', '인재 양성'임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목표는 지(知), 덕(德), 체(體)의 발달을 지향하는 전인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재상을 통해 모든 대학에서는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발달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대학에서 핵심역량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역량이다. 특히나 '창의역량'은 모든 대학에서 설정해놓은 역량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은 '창의력'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인성교육, 지성교육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부경대에서는 교양교육을 미래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까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다.

넷째, 교양교육과정의 영역으로는 학교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로 교양 필수, 기초교양, 선택교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양필수로는 모든 대학에서 글쓰기, 영어, 컴퓨팅사고(코딩, 소프트웨어 등의 명칭)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위 교과목들은 공통기초 역량교양, 핵심교양 등의 명칭으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교과목들의 내용적인 면을 보았을 때 핵심역량으로 자주 등장했던 단어인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과 매우 부합하는 교과목으로 엿보인다.

나.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한 인식

첫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하여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점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균 4점대인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역량별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며, 역량향상을 위해 교양교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 산업 및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은 핵심역량 연계성보다 낮았으며, 학생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도 근소한 차이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단과대학 별 교양교육과정 개발영역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인식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역량이 맞게 설정이 되어있다고 인식

하였다. 그러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역량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핵심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34.6%)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요 및 트렌드 미반영, 강제성을 띤 수강신청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현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구성에 대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한 인식

첫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한 충실도에 대한 인식은 4.16으로 4점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진행이 충실하며, 분반의 운영도 균질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단과대학 별 교양교육과정 운영영역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주관식 응답에서는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충실도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인식이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가 17.3%인 점

을 보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11.9%), 강의의 질적인 문제(8.5%), 교수법의 문제(7.6%)의 순서로 문제점을 제시한 점을 통해 수업 운영에 있어 질적인 문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선점으로 강의 방식 개선(11.4%)가 가장 높은 순위인 점을 보아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한 인식

첫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해 4.16 정도로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성과에 있어서 전공 이외의 분야를 경험, 기본역량을 기를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선의 측면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성과의 측면보다 다소 낮았으며, 학생 의견이 적절히 반영됨도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단과대학 별 교양교육과정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주관식 응답에서는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이 64.2%이며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음이 다음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교양교육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의 질적인 문제, 비대면 수업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통해 강의계획서, 수업과정 및 CQI보고서 등 다양한 역량기반 수업 개선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제성이 있는 수업, 학점 이수 목적으로의 수업 수강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영역 구분의 개편을 통해 자율적인 선택을 폭을 넓히는 것을 제시하였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운영, 성과 및 개선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P 대학교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에게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에 맞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은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 교과목과 핵심역량과의 관계 전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역량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인식과 참여의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 핵심역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34.6%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P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적소양을 길러 변화하는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목표 없는 교양교육 수업의 수강은 단순히 학점 이수의 목적이라는 문제점을 낳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융합의 사고방식을 심어 주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객관식 응답에서도 제일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선점과 문제점에서도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선호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년 P 대학에서는 융복합 교양교과목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과목 구성에 대하여 학생과 학교의 여러 인식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만족할 다양한 교과목 구성으로 발전해나갔으면 한다.

셋째, 체계화된 제도적 방안 개선을 통해 강의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

다. 서술형 응답의 문제점에서 교육의 질 개선, 의사소통의 필요성, 강의 방법 개선 등 교수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대다수의 수업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었으며, 교수매체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업의 질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Centra(1993)과 Adams & Umbach(2012)는 강의평가란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주장하듯이 P 대학에서도 수업의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강의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강의개선계획서, 강의개선결과보고서, 중간강의 평가, 수업신문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업의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설문의 결과를 통해 수업의 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은 강의평가의 결과가 교수님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식적인 강의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강의평가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제도적인 방안이 재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하여 타지방국립대학의 학생들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국립대학의 현재의 교양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P 대학의 학생들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각 대학의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은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본 연구와 달리 타 학교 학생들의 설문도 표본으로 한다면 교양교육의 발전에 풍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의 원 데이터를 얻지 못하여 평균값을 데이터로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한계가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학과의 평균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배경요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과대학이 아닌 성별, 학년 요인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인식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통해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인 학생기획평가단 보고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학생을 통해 타 학생의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역량 차이의 한계가 있다.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주관식 설문 문항의 심층적인 응답을 끌어낸 학생도 있을 것이며, 단편적인 답변만을 수집한 케이스도 있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훈련된 연구자가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알기 힘든 새로운 점을 찾아 교양교육과정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온리서치. (2022). 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학생기획평가단 활동결과 분석 보고서. 부경대학교

강지혜, 손복은. (2021). 대학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준거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15, 309-324.

강창동. (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안암교육학회, 83-107.

곽영순. (2012). 학습자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과학과 수업방법 개선 방안.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5), 855-865.

곽은희. (2017).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육부. (2018).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일반대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20).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구병모, 김기호, 김종규. (2010). 역량과 역량모형의 연구: 역량모형 연구의 현 주소. 인적자원개발연구, 13(1), 131-154.

김대중, 김소영. (2017).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교육연구, 2(1), 23-45.

김대현, 이은화. (2005). 대학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2(2), 217-246.

김대현. (2021).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안나, 이병식. (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0(1), 367-392

김인영. (2020). 역량기반 교양교육 설계 요건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양교육연구, 14(6), 한국교양교육학회, 237-251

김진모. (2001).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직업교육연구, 20(2), 109-128.

김혜영, 유지현, 이숙정. (2021).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실현에 관한 제언. 교양기초교육연구, 2(1), 83-103.

박병철. (2019). 리버럴아츠 교육과 한국의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13(1), 163-180.

박은숙. (2021).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N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3), 147-168.

박혜림. (2007).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09-132.

백승수. (2017).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13-51.

백승수. (2019a).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교육연구, 13(1), 141~161.

백승수. (2019b).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13(6), 101-122.

백승수. (2020).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4(3), 11-23.

서정일. (2021).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 융합, 43, 135-152.

설연경. (2020). '변혁적 역량기반 (Transformative Competencies)'미래지향적 교육설계 방안. 교양교육연구, 14(3), 25-38.

손민호. (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한국교육

과정학회, 1-25.

손승남. (2021). 리버럴아츠 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363-384.

신철균, 변혜영, 어성민, 김성목. (2020). 학생· 교원의 교양교육과정 인식 및 요구 분석-A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3), 217-231.

신현석, 변수연, 전재은. (2016).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34(1), 73-102.

양지선, 유태명. (2019). OECD Education 2030 에서 제안된 핵심역량의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 반영 특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2), 113-135.

윤유진, 이연주. (2018).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 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12(2), 259-286.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윤지원, 강수환. (2020). C 대학교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21, 11(6), 1001-1012.

이경숙. (2021).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교양교육 담당교원의 인식 연구: 지방 중소형 A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40(2), 153-182.

이근호 (Ed.).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교육 과정 구상. Jinhan M&B.

이민정. (2017). ACE 사업 참여 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전략에서의 교육적 함의. 아시아교육연구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

이민효. (2022). 대학교육에서 PDCA 및 ADDIE 모형을 활용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모형 및 교수설계 방안 개발.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민. (2021).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과 운영실태 및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은, 소경희. (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39-164

이서진. (2021).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 역량기반 교육 방향 탐색.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성호. (199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세계 주요국의 대학 교양교육 (1). 대학교육, 59, 46-55.

이성호. (2016).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쟁점과 교훈. 한국교육, 43, 63-80.

이숙정, 이수정. (2012).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11-42.

임민경. (2022). 대학 과학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대학 구성원 인식 탐색 - 단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호. (2016).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P 대학 학생의 인식 분석. 교양교육연구, 10(4), 283-310.

정연재, 주소영, 정기섭, 이영선. (2021).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조건과 방향에 대한 탐색-I 대학교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4), 251-263.

조남민, 손달임, 황미경. (2022). 대학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적용 타당성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16, 31-48.

조헌국. (2017).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11(2), 53-89.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차제순, 이재현. (2014). 자유교육의 전통과 하버드 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385-392.

최미리. (2017).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263-292.

최병문. (2018). Liberal Arts College 운영사례: 대전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1-288.

최상덕. (2015).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Ⅲ):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하지현. (2019). 대학교양교육 운영주체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편성 비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일, 권영신, 주정흔. (2003). 미국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 분석-2002년 미국 Top 10 National Universities 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3(1), 91-120.

허영주. (2017).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위한 역량의 재개념화: Sen 의 잠재가능성 접근과 Vallance 의 다양한 앎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4), 11-39.

홍석민. (2018).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유교양으로서의 역사 교육: 내용과 방법의 모색.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9-76.

강원대학교 교육목표와 인재상, https://www.kangwon.ac.kr/www/contents.do?key=2108&. 검색

경북대학교 교육목표, https://www.knu.ac.kr/wbbs/wbbs/contents/index.action?menu_url=intro/about03&menu_idx=8, 검색

경상국립대학교 이념, https://www.gnu.ac.kr/main/cm/cntnts/cntnts

View.do?mi=11072&cntntsId=5376, 검색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https://uispc.org/performance/business-plan.php. 검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8).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SeCo Project) 요약. https://www.kdemocracy.or.kr/book/data/book/page/1/post/8284

부경대학교 강의계획서, https://irumi.pknu.ac.kr/nxui/launch.html?screenid=Desktop_screen_quick&menuId=U020913, 검색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교육목표, https://www.pknu.ac.kr/main/12, 검색

부산대학교 교육목표, https://www.pusan.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50, 검색

전남대학교 교시, https://www.jnu.ac.kr/MainIntro/Symbol/JnuIdea. 검색

충북대학교 교육목표 및 인재상, https://www.chungbuk.ac.kr/site/www/sub.do?key=1725. 검색

Adams, M. J., & Umbach, P. D. (2012). Nonresponse and online student evaluations of teaching: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salience, fatigue, and academic environm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3(5), 576-591.

Boyatzis, R. E. (1991).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Boyer, E. L. (1987). College: the undergraduates experience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Centra, J. A. (1993). Reflective Faculty Evaluation: Enhancing Teaching

and Determining Faculty Effectiveness. The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Inc.,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OECD. (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executive summary. http://www. deseco. admin. ch/bfs/deseco/en/index/02. html.

Schwab, K.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역). 메가스터디북스. (원본 출판 2016)

Parry, S. B.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33(7), 48-56